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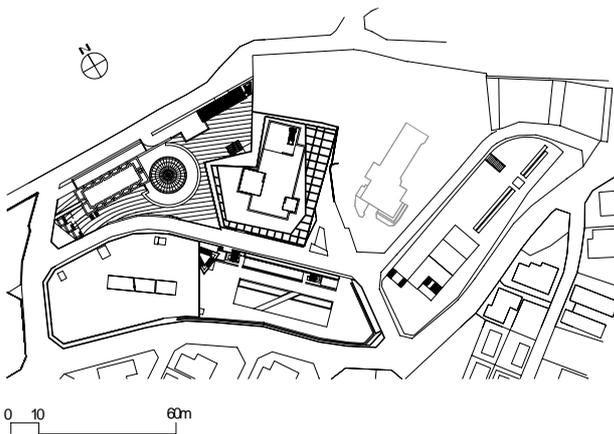
삼성미술관 리움

Samsung Museum of Art Leeum

〈2005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특선 수상작〉

●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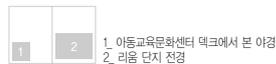
● 건축개요



- 대지위치 서울 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42-3번지외
-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대지면적 8,102㎡
- 건축면적 3,709㎡
- 연 면 적 28,264㎡
- 규 모 지하 3층, 지상 4층
- 구 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 외부 마감 한남동고미술센터 - 테라코나 벽돌
한남동현대미술관 - 스테인레스스틸 블랙파티나, 엑스트라화이트 접합복층유리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 - 엑스트라화이트 접합복층유리, 자라목
- 시 공 사 삼성물산(주)
- 건 축 주 삼성문화재단, (복)삼성생명공익재단



- Location 742-3, Hannam-dong, Yongsan-gu, Seoul, Korea
- Site area 8,102㎡
- Bldg. area 3,709㎡
- Gross floor area 28,264㎡
- Structure R,C.
- Bldg. Scale three stories below ground, four stories above ground



국내 최대의 사립 미술관으로 그 방대하고 수준 높은 소장품을 자랑해 온 삼성문화재단에서 서울 도심에 우리 나라를 대표할 미술관을 새로 짓기로 한다. 서울의 문화축을 재편할 랜드마크이자 세계를 향한 문화의 발신지가 될 이 미술관 건립에서 우리는 부지 선정과 컨셉트의 도출, 건축가 선정으로부터 전시 계획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했다. 10여 년 전에 시작된 이 미술관 건축은 IMF 등의 난관을 맞으면서도 끈기 있게 계속되었고, 각 건축가들을 자극하고 대안을 모색해냄으로써 협력 방식에 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삼성미술관 리움은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와 공간 그리고 예술을 해석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예술을 담을 독특한 개성의 세 건축물을 하나의 부지 안에 유기적으로 배치한

이 복합형 미술관은 창의력과 기술력의 집약체이자 이 시대 건축의 일면을 대표하는 예술 작품이다.

고미술관인 M1은 스위스의 건축가 마리오 보타가 설계를 맡았다. 역원추형의 매스는 도자기, 성곽의 형태를 닮은 사각 매스는 인류의 보고인 예술품을 수호하는 동시에 성곽 도시 서울의 역사를 연상케 한다. 고미술품을 외기로부터 차단하려는 듯한 견고한 벽체는 테라코타 타일로 마감되었는데, 이는 흙과 불에서 탄생한 도자기를 은유하는 것이다. 이 특징적인 외관과 빛깔은 주택가에 낮게 위치한 LEEUM의 랜드마크 역할도 맡는다. M1의 지하에는 세 건축물을 연결하는 중성적 공간인 믹싱 체임버가 위치하고, 건물을 관통하는 긴 로툰다를 통해 자연

광이 지하까지 내려온다. 보호와 보존이 특히 중요한 고미술품을 위해 국내 최초로 글라스바우한의 특수 케이스를 도입했으며 조명 및 내장재는 물론 미술관 내부의 가구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과정을 거쳐 선정했다.

한국 및 세계의 근현대 미술의 흐름을 담은 M2의 기본 설계는 프랑스의 건축가 장 누벨에게 의뢰했다. 굴착된 대지에서 광물처럼 솟아난 괴체 그리고 산수화처럼 풍경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내부 공간을 기본 개념으로 설정했다. 저철분 투명 유리 사이에 원석처럼 박힌 검은 전시상자들은 M2의 외관을 구성하면서 각각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갤러리의 역할을 맡는다. 녹이 안 스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녹슬게 하는 지난한 과정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해 낸 외장재 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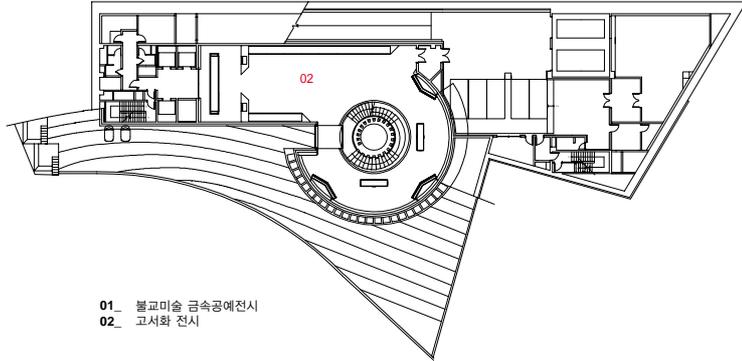
랙 파티나, 굴착된 지면에서 나온 재료를 자연스럽게 수용한 선근 가든의 돌망태 등 이 건물의 특징적 요소들은 삼우설계가 새로이 고안하고 건축가 및 건축주를 이끌어 가며 얻은 성과다. 자연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 인간과 예술 사이의 대화를 이끌어 내는 이 건축물은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이라고 해도 좋다.

대지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도시 및 순환의 방식을 실험하기 위해 렘 쿨하스의 OMA와 협력했다. 렘 쿨하스는 세 건축물 사이의 유기적 순환과 건물로의 진입 방식 등을 함께 모색하는 역할을 맡았다. 아동교육문화센터 설계 과정에서는 굴착된 지면의 형태를 그대로 살리면서 그 내부에 개념적으로 완전히 공중에 떠 있는 블랙 박스를 제안했다. 강렬한 에너지를 품고 진동하는 듯한 거대한 블랙박스는 아직 향방을 알 수 없는 미래의 예술적 상상력을 반영한다. 여기에 블랙 콘크리트를 세계 최초로 적용함으로써 이 개념을 최적화한 형태로 실현해 냈다. M1과 M2를 부각시키기 위한 평평한 고원과 같은 '보이지 않는' 건축이라는 개념 아래 극도의 투명성으로 서로를 관입시키는 외경과 내경, 세 줄의 띠로 집약되는 미니멀한 외관, 관람객의 접근을 쉽게 한 진입 경사로 등이 돋보이는 이 건물은 삼우설계의 끈기 있는 파트너십으로 렘 쿨하스의 개념을 실제 건물로 구현시킨,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문 사례로 기록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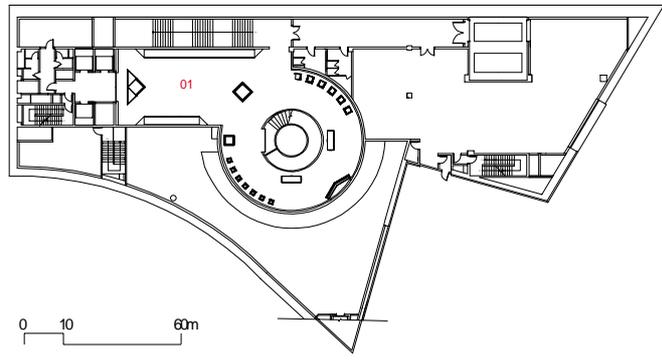
- | | | | |
|-------------|-------------------|--------------------|-------------|
| 1 | 2 | 3 | 4 |
| 1. 고미술센터 전경 | 2. 고미술센터 로туда 부분 | 3. 고미술센터 백자 전시실 내부 | 4. 메인 로비 전경 |

● 고미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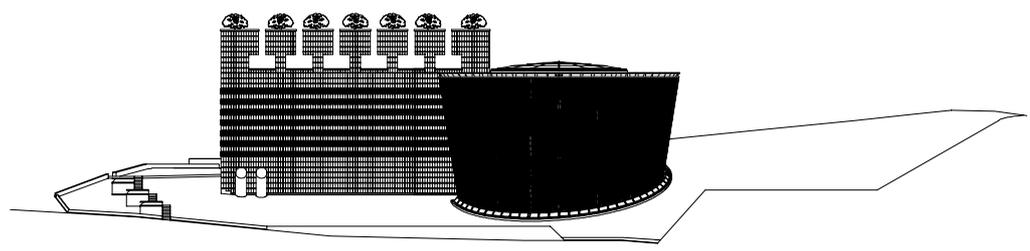
- 01_ 불교미술 금속공예전시
- 02_ 고서화 전시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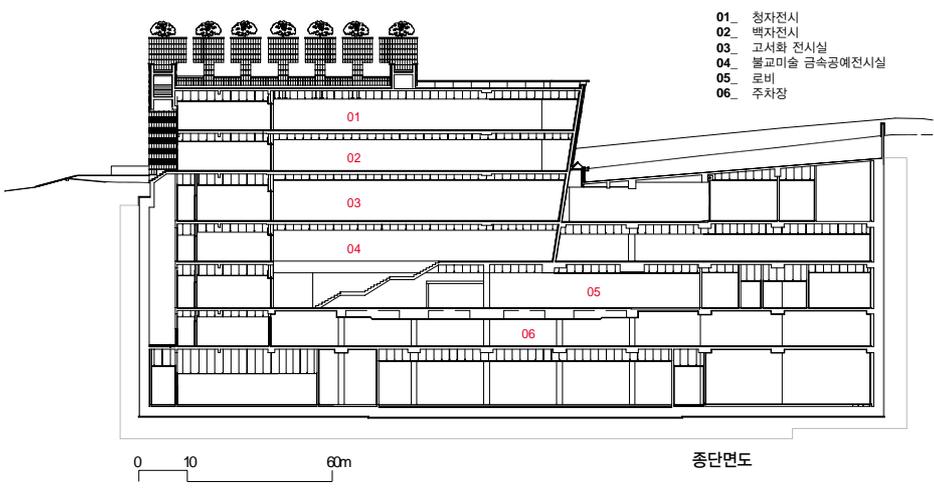


0 10 60m

1층 평면도



정면도



- 01_ 청자전시
- 02_ 백자전시
- 03_ 고서화 전시실
- 04_ 불교미술 금속공예전시실
- 05_ 로비
- 06_ 주차장

0 10 6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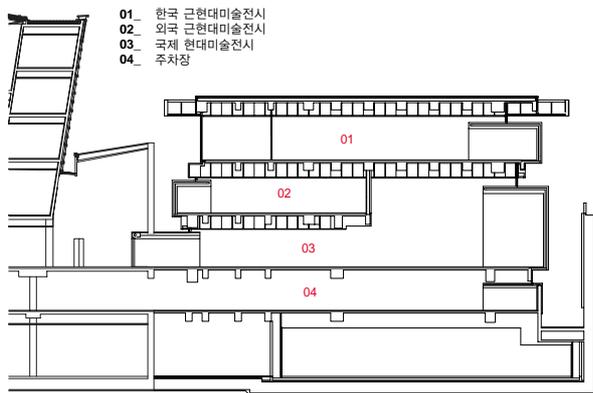
종단면도



- | | | |
|---|---|---|
| 1 | 2 | 3 |
|---|---|---|
1. 현대미술관 2층 전시실내부
 2. 현대미술관 전경
 3. 현대미술관 지하층 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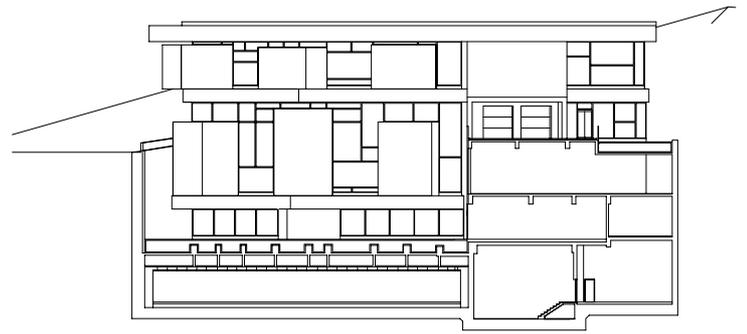


● 현대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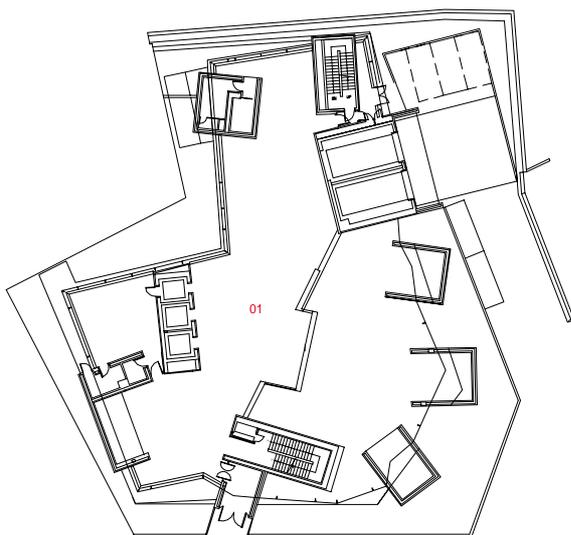


- 01_ 한국 근현대미술전시
- 02_ 외국 근현대미술전시
- 03_ 국제 현대미술전시
- 04_ 주차장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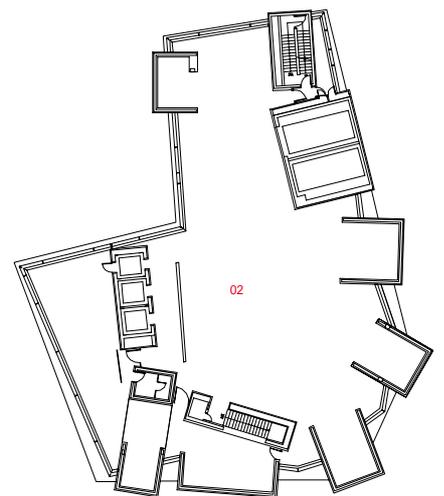


동쪽입면도



1층 평면도

- 01_ 외국 근현대미술전시
- 02_ 한국 근현대미술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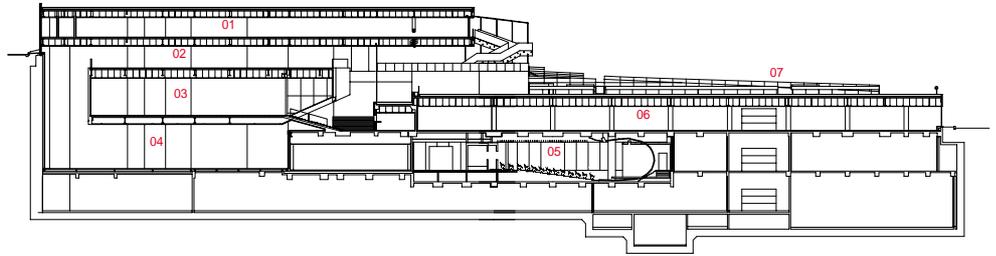
2층 평면도

0 10 6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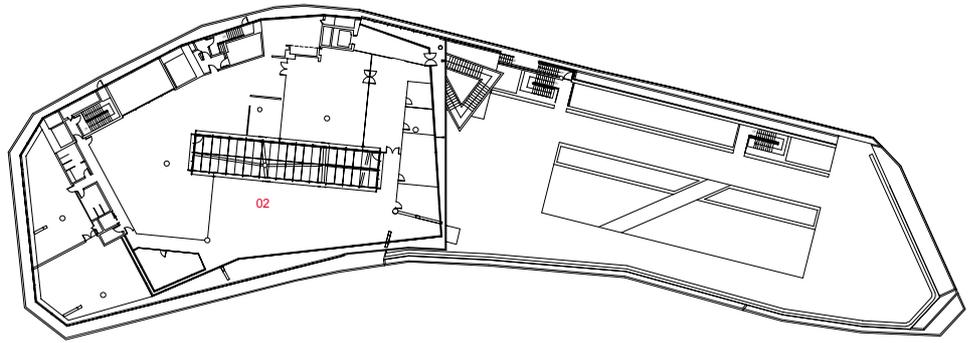


● 아동교육문화센터

- 01_ 사무실
- 02_ 라운지
- 03_ 기획전시실
- 04_ 아동 예술체험공간
- 05_ 강당
- 06_ 주차장
- 07_ 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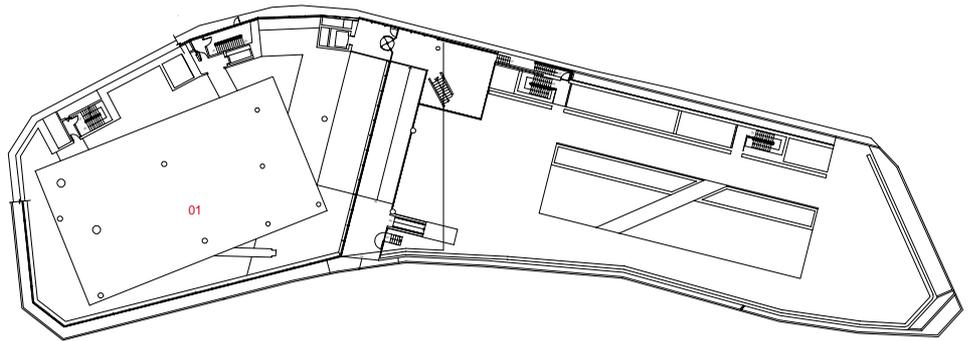


단면도



2층 평면도

- 01_ 라운지
- 02_ 사무실



1층 평면도



- | | |
|---|--|
| 1 | |
| 2 | |
- 1. 아동교육문화센터 전경
 - 2. 주도로에서 본 센터 파사드 야경
 - 3. 아동교육문화센터 내부 볼레방스
 - 4. 아동교육문화센터 내부 진입 램프